



## 아버지입니까?

불의 연구에서 (월드뷰는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이하, 아버지학교) 상임이사이자 국제운동본부장으로 삼기고 있는 김상목 장모를 찾았다. 오랫동안 아버지들의 위로자이자 멘토로 시역해 온 그에게서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아버지학교는 1995년 10월, 두란노서원에서 처음 개설되었다. 우리 사회가 인고 있는 문제는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이 아버지학교의 출발점이었다.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며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잘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잡기 위해 아버지 부재의 가정에 아버지를 되돌려 보내자는 것이 아버지학교의 목적이다.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아버지학교를 열어 주로 기독교인들이 참석했지만, IMF 이후 아버지학교가 교회 밖으로 알려지면서, 비기독교인들이 참석이 늘었다. 일반인들을 위한 아버지학교 개설 요청으로 2004년부터 '열린아버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3월 현재 약 22만 명이 넘는 아버지들이 아버지학교에 다녀갔다. 국내를 포함해 47개국 230개 도시에서 개설되었다.



### 잊을 수 없는 편지

김 본부장은 잊을 수 없는 한 아이의 편지가 있다고 했다. 몇 년 전, 한 사회단체와 함께 홀어머니들과 그분들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일이다. 어머니들과 자녀를 따로 떼어놓고 교육한 뒤에, 자녀에게 아버지께 편지를 숙제를 내주었다. 대부분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편지가 있었다.

“네가 아빠라고? 이 짐승 같은 놈! 광우병 소만도 못한 놈아! 너도 이다음에 여자 로 태어나서 똑같이 당해봐라.”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학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아들은 남자란 지황게 여자를 감싸고 보호해 주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한다. 딸은 여성으로서 행복을 느끼며 자란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은 아이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휴거나 병기도 없고, 정년퇴지도 없는 자리다.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이다. 남자로 태어나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는 바로 아버지라는 자리다. 남자로서 일터에서 남길 수 있는 그 어떤 영향력보다 강한 영향력을 남기는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리다.

아버지 노릇 하는 것이 어려운 것에 비해 아버지가 되기는 쉽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아버지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함에도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김 본부장은 아버지를 주목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 하에 4~5주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한, 아버지의 정체성과 신분을 되찾게 된다.

### 관계 핵심이다

김 본부장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은 섬적립 살 수 없다. 우리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관계는 접근과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타인이나 상황에 어떻게 접근하고 타인과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사람됨이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들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른다. 김 본부장은 이 땅의 아버지들은 체면문화의 희생자라고 했다. 체면문화는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직절히 거리를 두라고 가르친다. 통제를 위해서는 적절히 거리가 필수적이다. 소위 필불출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가족을 칭찬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늘 염려하는 체면문화 아래에서 사람들은 타인에게서는 친절하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권위적이다. 자녀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나를 무시해라고 반응한다. 아버지로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태어나 아버지가 되어 살면 그들은 상처를 안은 채 살았다. 그 상처의 뱀눈에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처를 꾸밈없이 드러내 상처가 대물림된다.

### 상처를 극복해야 한다

아버지들의 어려움을 치유해 온 김 본부장은 끝으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의 50/60대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세대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 그들의 수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버지 세대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서 온 술의 절반이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고서야 가슴을 연다고 했다.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가 되어 살아온 그들은 상처를 안은 채 살았다. 그 상처의 뿌리에는 아버지가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버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집근과 반응의 역할 모델이 아버지다. 아버지와외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처를 꾸밈없이 드러내 상처가 대물림된다.

김 본부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세 시제를 살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것이다. 다가오는 미래가 현재와 달리 더 좋은 상황이 되려면 현재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를 바꾸지 않고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를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에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재해석하면 된다. 김 장로는 요셉의 예를 강조했다. 요셉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현재 삶에서 과거와 싸울 필요가 없다. 과거를 지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과거를 재해석하면 된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아버지는 축복하는 사람임을 강조했다. 부모에게 축복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다. 아버지는 아이의 거울이다. 아이는 아버지가 비춰주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자화상을 형성해 간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라고 강조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아버지가 한 걸음 나아가면 가족은 두세 걸음 다가온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㉞



김진주 본지 편집인, 문화평론가, 목사, 한양대학교, 숭실대학교, 신학대학원, 서강대학교 인문대학원에서 공부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출판기획자, 문화사업자로 사역해 왔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공동체에서 OJIP 출판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